

대구광역시

道 '저출생과 전쟁' 자금 1100억 투입...역대 최대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 저출생 문제 경북서 해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도비 541억원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전쟁자금을 마련해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이 '자금'은 단일 분야로는 추경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서비스하고자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남남 주선 △행복 출산 △안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만남 주선 분야는 커플·신혼부부 관광 지원 4억, 행복 가족 여행 2억6000만원, 청춘동아리 등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1억 6000만원 등 8억원이 편성됐다.

행복 출산 분야는 임신부 미역·농산물 지원 6억3000만원, 분만산부인과,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4억5000만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4억4000만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3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4000만원 등 24억원이 투입된다.

안전 돌봄 분야는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49억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8억2000만원, 자녀안심 아이사랑 차량 운행 5억원 등 76억원이 쓰인다.

도는 즉시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선보인다.

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도민 정책요구와 사업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화려한 춤 실력... 내가 최고다 지난 5일 '예천탈춤제'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춤 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관련기사 9면**

경북도의회, 2024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국가적 위기 저출생 극복 고물가, 고금리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했다.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

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 많은 작품을 출품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의원(오광)은 경북도의 저출생문제 가심각한데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단일하게 대처해왔다고 질타했다.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의 경제 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

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호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임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용 기자

칠곡 할매힙합 '수니와 칠공주' 해외 방송됐다

140개국 시청자 앞에서 랩 일본 NHK 방송 타고 140개국서 방송 열광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할매들 랩 실력 어떤가요?" 칠곡 할매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가 일본 NHK 방송을 타고 전 세계 140개국 안방 시청자 앞에서 랩을 선보이며 'K-할매'의 흥과 끼를 뽐냈다.

6일 칠곡군에 따르면 영국 BBC 인터넷 서널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방송으로 꼽히는 NHK 월드 TV는 수니와 칠공주를 집중 조명하는 방송을 지난달 25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했다.

수니와 칠공주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8명의 할머니가 모여 결성한 할매힙합 그룹이다. 세계 주요 외신으로부터 K-할매라고 불

리며 대기업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NHK 월드 TV는 칠곡군을 방문해 1박 2일에 걸쳐 수니와 칠공주를 직접 취재하며 3분 40초 분량의 뉴스를 제작했다.

NHK는 뉴스에서 수니와 칠공주를 신선한 라인업으로 이름을 날리며 랩이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소개했다.

또 "나이가 유일한 매력은 아니며 삶과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노래한다"며 "앞으로 이 그룹의 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수니와 칠공주의 리더 박점순 할머니는 "우리가 전 세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인생 황금기에 황금기를 맞은 것 같다"며 "건강 관리를 잘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여만리 떨어진 국가의 TV에서 칠곡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수니와 칠공주는 전 세계 108개국에서 시청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리랑 국제방송과 세계 3대 통신사로 꼽히는 로이터와 AP통신은 물론 중국 CCTV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 소개되고 있다. 조미경 기자



! 단체장 일정 !



이강덕 포항시장은 7일 오전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7일 오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5월 직원정례회에 참석해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은 월정교...

경주시, 지난달 외교부 제출한 유치 신청서 통해 이같이 밝혀

경주시가 20년 만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APEC 정상회의' 도전에 나선 가운데, 세계 정상들의 만찬장으로 월정교를 외교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경주시가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 제출한 529쪽 분량의 유치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희망하는 지방

자치단체 가운데 역사문화도시라는 유일한 특성이 정확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답게 세계 정상들과 수행원들이 묵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숙소가 풍부한 점과 숙소와 회의장이 3km 내에 있어 정상 경호에도 유리하다는 점들이 자세히 수록됐다.

보문관광단지에서 전 일정 소화가 가능해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역시 상세히 담겼다.

무엇보다 APEC 정상회의의 화룡점정이라고 일컫는 국민 공식만찬장으로 월정교를 활용하겠다는 제안도 눈에 띈다.

시는 사적 제457호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월정교에서 '대한민국의 맛과 멋 그리고 격을 높여주는 시간'을 컨셉으로 한 공식 만찬 계획을 세웠다.

월정교를 가로지르는 남천에 특설무대를 만들고 세계 정상들이 행사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월정교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근에 VIP 승하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도 경주시 제출했다.

월정교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축조된 교량으로 2018년 4월 복원되면서 침상대, 불국사, 석굴암 등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윤희찬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한민국 첨단농업의 미래를 키우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농업인 육성, 첨단농업 생산성 높임, 스마트팜 기술 연구 실증 지원.

한국자총 대구동구지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2일 큰고개오거리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표어와 함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 방법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목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장은 "회원들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운동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작은 실천들이 씨앗이 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민원공무원 괴롭힘 그만"...악성민원 원천봉쇄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 안내도 사진삭제, 공무원 보호강화

수성구는 악성민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지난 2일 발표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수성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A담당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상담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쫓겨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 게 다반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악성민원인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공무

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민원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 B씨는 공무원에게 계속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민원인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 청원경찰의 만류에도 계속된 고성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종료됐는데 놀란 마음은 하루종일 진정되지 않았다. 수성구는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악성 민원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성

구는 이달부터 전담 안전요원을 채용해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치했다. 민원실 내 상시 근무하는 안전요원은 악성 민원인이 위협 행동을 보이면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녹화·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 등 법률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구의원, 공무원노동조합, 변호사, 현직경찰,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그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앞으로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피해 공무원이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닌, 구청이 주체가 돼 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악성민원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최근 공무원 개인 신상정보의 과도한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성구는 비상대응반 편성, 경찰 합동 비상훈련 실시, 특이민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등 안전

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45대를 도입하고 올해는 민원 접점 부서에 16대를 추가로 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설 운영과 특이민원 피해공무원을 위한 의류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 민원행정서비스 악화로 이어지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첫 시범사업 시작

시범사업 올해만 세 번째 선정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지원

달성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은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제때 해소하지 못했던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소통 간격을 최소화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발굴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위험요소인 실업, 질병에 의한 소득감소 및 고령, 부양의무자의 상실,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상황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에 사용되는 '복지위기 알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앱에 인적사항, 위기상황, 주변사건, 요청내용 등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군에서 위기 알림 내용에 따라 △대상자 확인 △유선 및 방문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시범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 'AI 초기상담 서비스'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사업'은 이후 6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복지로, 네이바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편이점, 집배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시스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달성군 하빈면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방문

행복쇼핑 '2024년 5월 동행축제' ... 대구시가 함께한다

지역경제 활력 소비촉진 행사 개최 온라인몰, 전통시장, 지역축제 함께 대구시는 '2024년 5월 동행축제'를 맞아 온라인몰,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동행축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유통사·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과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 '2024년 5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가을(9월)과 겨울(12월)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4년 5월 동행축제'에 맞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온라인몰의 경우 대구·경북장애인기업제품 소평몰인 '우리몰', 대구광역

시 인증브랜드관 '쉬메릭', 약령시 한방제품 특별화물인 '약령몰'에서 할인 쿠폰 지급,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쉬메릭'은 행사 기간 중 전 상품에 대해 무료 배송 서비스와 가족사진 인증 이벤트를 운영하고, '약령몰'은 신규회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추가 발급하고 오프라인 픽업 시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몰'은 오는 17일부터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분실공고

분 실 내 용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발코니전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105동603호
수성구 수성로 35길 50
공 고 인 : 권용범 010-6666-9121

분실공고 이후 무효임
2024년 05월 03일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

K-SHOPPING FESTA

2024.5.1-5.28



경북도, 102회 어린이날 행사...이색 체험 순서 다양

경북도가 5일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경북도청 새마을 광장과 천년 숲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함께 열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아동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고, 도청 인근 호명초등학교, 풍천풍서초등학교 어린이 100여 명이 함께 참가해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를 시작으로 어린이 대표의 아동권리현장 낭독, 객석토크, 어린이날 주제영상 상영, 어린이날 기념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댄스팀 공연과 버블 아트쇼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한국생활개선회경북도연합회성금전달(배말란 고령군회장, 김옥련 경주시회장, 박병애 도연합회부회장, 이철우 지사, 홍말순 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손병일 공동모금회사무처장)



한국농촌지도자경북도연합회 성금 전달(손병일 공동모금회사무처장, 박원규 감사, 노주용 부회장, 장호원 회장, 이철우 지사, 진의환 수석부회장, 김윤성 부회장,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



경북도청·경북체육회 선수단 성금성금 전달(김구환 감독, 손병일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민섭선수, 박현수 선수, 이철우지사, 김인균감독, 이상학 체육회 사무처장)

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성금 활화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저출생 극복 성금 2천만원 도청·경북체육회 선수단 저출생 극복 성금 1550만원

경북도내 저출생 극복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경북도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경북도연합회는 지난 3일 경북지사 접견실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신기술 보급과 농업 현장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장호원 농촌지도자도 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저출생 극복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를 응원하며 힘을 보태

고자한다"고 말했다. 기부에 함께 참여한 김숙자 생활개선회도 회장은 "농촌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저출생 극복 사업에 도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농업 농촌을 묵묵히 지켜오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온 지역사회의 리더인 두 농업인 단체가 경북도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 기부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으로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지난해 8월 경북지역 수해 발생 시에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복구에 일손을 보태고, 성금 2천여 만 원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경북도청 및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3일 경북도청을 방문, 저출생 극복 성금 1550만원을 전달했다.

모금은 지난 3월 경상북도체육회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 국민 만원이 상 기부 운동' 모금 활동을 계기로 감독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시작했다.

선수단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희망 릴레이 챌린지, 울진산불 피해복구 성금, 2023년 국한호우 이웃돕기 성금 등 지역 내 기부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모금도 지도자와 선수 전원이 선뜻 마음을 모았다.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성금 500만원을 쾌척한 조정 국가대표 박현수(경북도청·30) 선수는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 주거나 돌봄 문제에 대해 남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었다. 기부라는 마음보다 예비 신혼부부인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수영 국가대표 김민섭(경상북도체육회·20) 선수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서 세운 한국 신기록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기부했다.

전남 출신인 김민섭 선수는 "경북도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모금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기부를 결정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선수단(18개팀 123명) 전원이 모금에 참여해 조성된 성금 1550만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가올 파리올림픽, 전국체전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선수단 전원이 동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2070년까지 경북을 인구 1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0.1%p 오른 30.3%...

총선후 3주연속 하락 차단 영남↓ PK 30%, TK 36.4% "채 상병 특검 협치 급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30.3%로 나타났다.

4·10 총선 이후 3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가뭄했다.

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5월3일까지 4일간(근로자의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묻은 결과 '잘함'이 30.3%, '잘못함'이 65.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3%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에서 32.6%(4월 2주차)→32.3%(4월 3주차)→30.2%(4월 4주차)로 3주 연속 하

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오르면서 20%대 하락을 막았다.

부정평가 역시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내린 65.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지지율이 오르고 영남과 서울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전주 대비 6.9%포인트 오른 40.9%, 광주·전라 지지율은 1.4%포인트 오른 18.6%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3.1%포인트 내린 30.2%, 대구·경북(TK) 지지율은 1.5%포인트 내린 36.4%로 집계됐다. 서울 지지율은 3.0%포인트 내린 27.0%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2.8%포인트 오른 29.3%, 30대에서 1.9%포인트 오른 29.1%로 청년층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반면 4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포인트 내린 19.8%, 50대 지지율은 1.0%포인트 내린 26.8%로 집계됐다.

道, 첫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7~12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월 발표한 경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도가 실시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

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에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道,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 1+1+1' 경품 행사

5월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높이고 기부자 만족도 ↑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행사를 한다.

행사는 7~6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 '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행사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경북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북도로 기부하는 수요도 증가시킨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고향 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the 22nd Yeongcheon Hanak Festival (제22회 영천한약축제) held from May 17 to 19, 2024, in Yeongcheon Hanam Village. The ad features a QR code, a QR code for the event website, and a large illustr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scene with people and a teapot. The text includes '2024 영천 한약 축제 행사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and '제22회 영천한약축제 with 작약꽃 2024. 5. 17 (금) ~ 5. 19 (일) 영천한마을 일원'.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8일 시행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은 8일 오전 8시40분부터 지역 74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대학 수능능력시험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한다.

6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이다.

1교시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 후 응시하게 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도 공통과목을 먼저 응시한 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구축 팔걸어

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대구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올해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사업 대상 학교 35교(초 12교, 중 11교, 고 12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추진, 초 83교, 중 79교, 고 42교 등 총 204교에 구축 완료했다.

지능형 과학실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실력 및 융·복합적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과학학습 공간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선정된 35교에 교당 최대 7천만 원씩 총 18억 5000만 원을 지원, △협력수업 환경 구축(스마트 TV, 조별 모니터 등 관련 기

자재 구축 등) △지능정보 기술 활용 환경 구축(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교구, AR, VR 기기 확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구축(안전 설비 교체, 개인 안전장구 확충 등) △과학실 환경 개선(노후 시설 정비 및 비품 교체)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방법 개선 및 탐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 대상으로 지능형 과학실 활용 연수를 실시하고, 지능형 과학실 교육 활동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올해는 지능형 과학실 ON 실천교사 30명을 선정,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설계·운영 및 성과 확산에 주력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미래지향적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실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 중심, 자기 주도 탐구기반 융합수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26명 붙잡아

폭주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지속 단속...

대구경찰청은 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총 26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 주요 집결지 13곳에 교통경찰과 사이드카, 기동대, 안행수찰팀 등 177명을 배치했다.

경찰오토바이 및 순찰차, 기동대버스, 비노출 차량 등 66대를 집중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뀌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 5건을 포함해 무면허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운행) 2건, 통고처분 17건(안전모미착용 7건·중첩 4건·신호위반 2건·통행금지 1건·기타 3건) 등

모두 26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체재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 후 엄정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시민들이 가장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1절 폭주족 단속에 나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운행·번호판 가림) 3건, 통고처분(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 침범) 10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7건 등 총 2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체재된 영상자료를 분석해 폭주행위 가담자 1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태용 기자

경북경찰, 퇴계의 길에서 청렴을 잇다



퇴계 이황의 얼이 서린 도산서 인문학캠프 개최

경북경찰청은 안동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북경찰청 청렴정책협의회 정기회의와 도내 청렴 선도그룹의 인문학 캠프를 동시에 진행했다.

김철문 청장은 “청렴한 공직자인 퇴계 이황 선생님의 얼이 서린 '도산'에서 청렴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도내 각 경찰서에서 청렴 문화 확산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청렴 문화 확산의 가치관을 본받아 더욱 청렴한 경북경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렴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추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 정책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정기회의에서 2024년 반부패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인문학 캠프는 도내 23개 경찰서 청렴선도그룹 대표자가 참여, 소통과 화합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문 철학 분야의 권위자인 대구교육대학교 장윤수 교수를 초빙, 청렴 특강을 했다.

장윤수 교수는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대구교육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동양철학회 회장에 이어 대한철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장 교수는 ‘퇴계이황의 청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퇴계 이황의 몇 가지 일화를 소개, 공직자로서 본받아야 할 ‘존중·배려·청렴’의 마음가짐을 일깨워주어 참석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한 미군 군인 영어동화책 읽어주는 날~!

대봉초, 사랑나눔 교육기부 영화 동화 읽기 운영 인기

대구대봉초등학교는 5-12월까지 8개월간(방학 제외) 월 1회 주한 미군 한국군 지원단 4지역대 미군 및 카슈사와 함께 하는 ‘영어 동화 읽기’ 교육기부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대봉초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캠프 핸디 주한 미군과 카슈사 분들의 재능기부로 실시되는 봉사활동이다.

대봉초 교사 및 원어민 강사와 캠프 핸디 장

병 20여 명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기획, Team-Teaching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된다.

3-4학년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의 동화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직접 발화하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학생들의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수업은 미군들과 카슈사 2명이 1팀을 이뤄 진행된다.

동화와 관련된 영어 노래 배우기, 퀴즈 풀기, 역할극 해보기, 책을 읽고 녹음, 발음 들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

힐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교육기부에 참여한 미군 소령 Raphia R. Russell은 “대봉초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활기찬 에너지에 깜짝 놀랐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었고,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열망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경돈 교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더 친근하게 여기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매년 증가

2024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경북교육청은 최근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홀에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이날 도내 국제교류 운영 초·중·고 116교의 업무 담당자 130여 명과 경북글로벌교육추진단 소속 교원 14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 운영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담당자와 컨설턴트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안내, 컨설팅 방법, 각종 유의 사항 안내, 우수 학

교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국제교류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나 업무에 생소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로 업무 능력을 키우고,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공통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글로벌교육추진단을 운영,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지원, 방문 컨설팅으로 국제교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의 국제교류는 방문·초청 교류와 온라인

교류, 블렌디드교류(온라인+방문·초청) 등의 유형이 있으며, 학교의 특색에 맞게 자율적인 주제로 운영된다.

올해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수업 나눔 교류,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교류,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와 실천 교류,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 부모 나라 방문 교류 등을 주제로 지난해 보다 24교가 증가한 116교에서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 운영학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불리는 K-EDU 원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총력!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 지원 화장실 안심스크린설치 최선

경북교육청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한다.

화장실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최근 다양·지능화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연 2회 이상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를 위한 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단위 학교에 지원했다.

이번 5월 한 달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집중 기

간으로 지정,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과 22일 양일간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

경북교육청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스마트기기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 안심스크린은 지난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으로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내 567교에 설치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분기 대구·경북 노동법
위반 신고 7300건...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는 7309건으로 지난해보다 26.6%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306억 원보다 22.6% 증가한 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의 꾸준한 근로감독 실시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과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해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대구노동청은 지역 내 법 위반 사업장 27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간다.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 선정...홍보, 판매 등 지원

경북도는 5일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해 업체당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은 안

동 '안동양반쌀', 상주 '풍년쌀골드', 문경 '재재정결미', 의성 '의성眞쌀', 고령 '고령 옥미', 예천 '맛나지에농협프리미엄미소진미'이다.

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브랜드 쌀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군 추천을 받은 9개 경영체의 브랜드 쌀을 전문가에 의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경북 우수 브랜드 쌀' 6개를 선정했다.

코스피 (-7.02)	코스닥 (-1.89)
2,676.63	865.59
연화 (-8.64p)	유가 (+0.15)
884.67	1,712.79
환율 (-9.00%)	금(金) (-1,810.53)
1,362.00	99,930.93

www.dgy.co.kr

DGB금융그룹, 2024 1분기 당기순이익 1117억 달성

철저한 내부통제 내실 경영 자산건전성 안정화 총매진

DGB금융그룹이 실적발표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의 1117억원을 달성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1680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준이다.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양호했으나 지난해 1분기 비이자이익(1940억원) 호조세의 여가져 효과와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저에 대한 손비용 증가가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그룹 실적은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실적은 나름 선방했다. DGB대구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1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보수적인 총당금 적립 기조가 이어진 결과다.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10.0%)으로 이자이익은 크게 증가했으며 비이자이익 또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은행 대출자산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향후 대손비용이 안정될 시 은행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투자증권과 DGB캐피탈 당기순이익은 각각 -49억원,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

소했다.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저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속 철저한 내부통제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새 아파트 7000가구 쏟아진다...

수성 6개 단지 2030가구
북구 2개 단지 1822가구
달서 1개 단지 1498가구



올해 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분양이 전무했던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최근 분양된 수성구 '범어아파트'가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 마감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전문 광고 대행사 에드메이저가 올해 대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 14개 단지, 6943가구(조합원 물량 1985가구 포함, 오피스텔 제외)다. 이중 후분양 물량은 9개 단지 3628가구, 선분양은 5개 단지 3315가구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2030가구(6개 단지)로 가장 많고, 북구 1822가구(2개 단지), 달서구 1498가구(1개 단지), 동구 740가구(2개 단지), 중구 613가구(2개 단지), 서구 240가구(1개 단지) 순이다.

수성구에 물량이 많이 몰린 것은 수요자의 주

거 선호도가 높아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선보인 '범어아파트'가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이 마감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82가구 모집에 1370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7대 1, 최고 경쟁률 32.9대 1(84㎡A)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이런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지난 3일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2차'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대구신세계백화점과 도시철도 엑스코션 연장 확정에 따라 동대구로 주변도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의 올해 전체 분양 물량 중 34%인 7개 단지 2352가구가 이곳에 몰려 있다.

2022년 7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북구 학정동 칠곡지구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는 1098가구로 올해 분양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구에서 1년5개월 만에 선분양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이달 중 분양한다.

북구 칠곡지구는 2019년 4월 매진동 '한신더휴' 입주 이후 5년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두석 에드메이저 사장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이나 공급이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에 나서는데 만큼 초기 분양 결과가 성공적이면 올해 신규 분양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여은 기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계약 전 인프라 설계 사전 착수로 사업 기간 최적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본사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체르노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은 30년 계속 운영을 위한 압력관(경수로 원전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설비)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are)와 3차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윤용찬 기자

경북우정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경북우정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한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아동들이 편지를 작성해 아동양육 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넣으면 소원선물을 전달하는 우체통 공익사업이다. 경북우정청은 지난 2일 대구 동구 소재의 육영학사를 방문, 소원편지를 보낸 아동 15명에게 답장과 함께 각자의 소원에 맞는 소원선물(총 15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원선물은 평소 아동들이 갖고 싶어 했던 악기,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사업지원국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아동들이 편지를 작성해 아동양육 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넣으면 소원선물을 전달하는 우체통 공익사업이다. 경북우정청은 지난 2일 대구 동구 소재의 육영학사를 방문, 소원편지를 보낸 아동 15명에게 답장과 함께 각자의 소원에 맞는 소원선물(총 15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원선물은 평소 아동들이 갖고 싶어 했던 악기,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사업지원국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실상 방치...

김대현 대구시의원
2022년 12월 갑작스레
단계별사업 전환한 뒤
아직까지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다 주장



의와 정책 점검을 거쳐 복합환승센터 건립, 순환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서대구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행정상의 이유로 들며 사실상 방치됐다"라고 지적했다.

김대현(사진) 대구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대구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악취 문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오랜 기간 사회적 합

그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2020년부터 1차 협상 대상자와 민간공동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갑작스레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한 뒤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대구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던 도시철도 순환선의 원점 재검토,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면수 등 방치된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 마련과 셔틀버스 운행 등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하폐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인접한 약취원으로 인해 서대구역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곤혹을 겪어왔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대구역세권의 변화는 대구시의 새로운 도약"이라며 "하폐수시설을 통합 지하화하는 등 각종 약취원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순환선 연결 같은 각각의 사업이 계획적이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NH NongHyup 농협 NAVER의 D 농협 NONGHYUP 김대현의원 동협파머스마켓 nhfm.co.kr

농협파머스마켓

http://nhfm.co.kr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경주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10일까지 접수

경주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안전차단기인 '타이머록' 무료 보급 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타이머록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

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80℃ 지속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다.

시는 28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00가구 규모로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록)를 설치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국 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서 위탁 시

행한다. 신청은 이달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39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록)를 설치했다.

경주시, '44억' 투입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농기계 30종 100대 추가 구입 균형 잡힌 농기계 임대서비스

경주 신농업혁신타운 내 들어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공사가 지난달 본격 시작했다. 시는 44억 원 예산을 들여 내남면 상리리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을 올 9월까지 추진한다. 30종 100여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해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본소는 7500㎡ 터에 건축 연면적 1468㎡ 규모로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및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립이 완료되면 내남에 들어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역 전체 농기계 서비스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 서악 본소는 본소로 운영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가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임대농기계 이용률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토일요일 등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 안전교육과 현장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는 총 1만1153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는 월 평균 20건으로, 총 246건을 기록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등 총 4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89종 1027대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준공되면 내남면 및 인근지역에 저렴한 농기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업무 효율성과 운영에도 크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방문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 지난 2일 경주 힐튼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

2025 APEC 개최도시 선정 현장실사 대비 총력

이달 예정된 현장실사 대비 유관기관 종합전략회의 가져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대비해 부서 및 유관기관 종합전략회의를 갖고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APEC경주 유치추진단장인 김성학 부시장 주재로, 도로, 교통, 안전, 환경 등 10여개 관련 부서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주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개최도시 선정 현장실사 대비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회의는 지난달 19일 유치신청서 제출에 이어 이달 중 예정된 현장실사에 완벽히 대비하

고자 마련했다. 부서 및 유관기관별 주요 시설 인프라와 예산 동선 내 주변 관광정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사단 브리핑과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검토 등 현장실사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회의로 진행됐다.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된 단 하나의 도시라는 메시지가 현장실사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사 프로그램을 기획, 시민의 유치 의지와 열원이 담긴 환영 분위기 조성하고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APEC정상회의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체 예행연습을 반복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인 회의·숙박·문화·의료·공항 시설에 대해 실사대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성학 부시장은 "향후 현장실사단 방문 시 다른 경쟁도시와는 다른 경주만의 차별화된 준비로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점검으로 미비한 부분을 사전 보완하고, 경주가 반드시 APEC 정상회의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 선화공주 백제 서동왕자 혼인... 동서화합

'2024 서동축제' 기간 경주-익산 상호 방문 영·호남 화합·교류

신라 대표도시 경경주와 백제 대표도시 익산이 지난 3~6일까지 4일간 열린 '2024 익산서동축제'로 영호남 우의를 다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시의장을 비롯한 익산시민 방문단 40여명이 서동축제 개막 전날인 지난 2일 경주를 찾았다. 방문은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서동왕자가 혼인을 맺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서동축제 기간 경주를 찾아 선화공주를 모신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틀간 경주에서 머물며 환영 행사와 문화유적지 탐방, 선물 교환 등 우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문 첫날인 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환

영만찬에 참석해 자매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환영만찬에는 경주-익산 두 도시 시민교류단 100여명이 참석해 영호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1400년 전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처럼 양도시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교류로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답사를 통해 "경주와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받았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동서 화합으로 우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경주시와 익산시는 이 같은 신라공주와 백제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난 1988년 친선을 위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25년간 '사동 도시'로 협력해왔다. 시는 올해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익산시를 돕기 위해 밭차 등 구호 물품

을 지원하며 온정을 나눴다. 최근에는 익산시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서동축제가 개막한 3일에는 경주 시민방문단 40여명이 익산시를 찾아 무왕행차 퍼레이드에 신라복을 입고 참여하면서 두 도시 간 우애를 다졌다. 익산 어양공원에서 익산중앙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800m 구간에서 펼쳐지는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서동축제 기간 가장 큰 행사다. 익산시는 이날 저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경주교류단을 위한 환영만찬을 열고 두 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서동축제 기간 경주시는 2024 선택여왕선발대회 '진' 수상자 김민혜(25·여)씨를 선화공주로 선발해 교류단 사절단 자격으로 익산에 보내며 서동축제의 성공과 영호남 간 화합을 이어갔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2024 대구광역시일보 & 경주보성마트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저출생 극복 성급 전달

경북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강덕 포함시장)는 지난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 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

화 행기 임차 운영예산 지원 확대 △실효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 면제 허용 산지 관리법 개정 등 총 6건의 건의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 '2024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제19회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등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정례회 폐회에 앞서 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공검면, 첫 모내기 풍년농사 대박기원 상주시 공검면은 지난 2일 공검면역곡리에서 올한해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첫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를 한 공검면역곡리 이모 씨는 공검면에 수도작 규모가 가장 큰 농가이며 품질 좋은 벼를 생산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 공검면 체육회원 등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공검면의 본격적인 모내기는 6월 초까지 진행된다 (사진=상주시제공)

상주시, 우수외국인 채용설명회 뚝뚝뚝

국내 대학 석박사,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 등 다양한 우수외국인 모여 무어건 등 대해 상세하게 문의하는 등 상주시 취업에 대해 열의를 보였다. 교육에는 국내대학 석·박사, 반도체·전자산업 전문직종 종사자, 운전면허·지게차 등 각종 자격증 보유자 및 한국 영주권 취득희망자 등 다양한 국적과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외국인 A씨는 "매번 비자연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만 취득하면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아내와 함께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 오늘 교육에서 좋은 기업을 소개받아서 꿈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다. 지난 4월 우수외국인 근로자 2명을 채용한 H업체 관계자는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라서 그런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근무에 대한 열의를 보여서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더 많은 우수외국인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전국 2시간대 교통망, 향후 중부내륙 고속철도 준공 시 수도권-국제공항 등 한국 주요 도시에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고, 지역에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한국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주시는 외국인 방문, 거주, 취업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함께 갖춘 최적의 시기에 더 많은 우수외국인이 상주시에서 코리아 드림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경북도와 상주시가 주관, K-드림외국인센터가 주최했다. 이영호 기자

제9회 예천전국가요제... 모두 즐거워했다

지난달 14일 148명의 예심참가자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6팀의 경연자들이 열린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용두산 엘레지 부른 10살 최연소 출연자 윤운서 양 대상수상 상금 400만원 받아... 금상은 김규민씨(청주), 은상은 이환욱씨(김천), 동상은 박지혜씨(거창), 가장상은 곽태영씨(예천), 인기상은 이세희씨(예천)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윤운서 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축하무대는 불타는 트롯맨 정다한, 내일은 미



제9회 예천전국가요제가 지난 4월 2024 예천활축제장에서 열렸다.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가 행사장에 참석, 웃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문경 찾사발축제'에 울려 퍼진 문경새재아리랑

문경찾사발축제가 막바지를 향한 시점인, 지난 4일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광화문 옆 주무대에서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가 주관한 국

악 공연이 펼쳐졌다. 5월 첫 연휴 첫날 나들이나 오신 관광객들이 관중석을 가득 매웠다. 열정적인 무대와 환호하는 관객이 하나 되는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공연의 주제는 '아리랑'으로서, 찾사발축제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을 흥겹고 즐겁게 하는 다양

한 공연을 준비했다. 문경새재아리랑이 '근대 아리랑의 시인'이고 아리랑고개 문경새재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아리랑을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힘을 쏟았다. 인영호 기자

포항 국제 불꽃쇼 1000대 드론쇼...

축제 관람객 편리함 안전 강조 축제 완성도 높이기 전력투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 개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004년 첫 개최 이후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는 오는 31~6월 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한달 여 앞둔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 부서별 준비상황 점검보고회를 가졌다. 포항문화재단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20여 개 부서별 준비 상황 보고를 바탕으로, 포항남·북부경찰서, 포항남·북부소방서, 포항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행사대행사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는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 축제프로그램·교통·안전관리·연계행사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문화재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영일교·포스코 야경과 아우러진 '그랜드피날레(한국)에 더해 최초로 관람객이 불꽃쇼 우승팀을 선정하는 영국·호주·중국 등 3개국 이 참여하는 '국제불꽃경연대회'가 펼쳐진다. 1000대의 드론쇼로 밤하늘을 밝히는 '불빛드론쇼'가 특별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불을 활용한 서커스인 '파이어 드림시어터'와 공중에서 빛과 함께 펼쳐지는 '플라임 퍼포먼스' 등 불과 빛에 특화된 새로운 축제콘텐츠를 포함해 불빛체험존, 풍스토랑, PH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장상길 부시장은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꽃축제를 위해 관계부서·유관기관 모두 자긍심을 갖고 성공적이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은 한달여 간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형명 기자



구미시, 장애인 복지 시책 '눈에 띄네'

도내 최초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주택 운영...장애인 복지선도 구미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주택 운영, 무장애 도시 조성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미시의 등록 장애인은 총인구의 4.23%인 1만7141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과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연계해 직업훈련생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주택'은 현재 남녀 각 1개소를 운영, 총 6명의 훈련생이 생활 중이다. 취업생 중 60%가 취업에 성공했다.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모범적 다부처 협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고향 사랑 기금을 연계, 장애인 돌봄 공백 제어를 위한 '긴급 돌봄 사업'을 운영해 장애인 보호자의 병입 입원, 경조사 등 가구원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4시간, 연 50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대구·경북 최초로 차 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에서 지정했다. 구미 시민과 함께 인근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도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했다. 공연 사회는 황동철 이사가 맡아 진행, 한우리국악단이 협연, 함께한 해금, 장고, 징, 북, 피리, 태평소, 가야금 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첫 순서로 공연해설을 겸해 문경새재아리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만우 위원장이 '문경새재아리랑 유래 및 특성'을 짧게 설명했다. 한우리국악단의 반주로 한복을 곁에 입은 아 도위함장단이 문경새재 아리랑, 문경풍년아리랑, 본조아리랑을 부르고 난 뒤 소속 국악인 3명이 노래가라, 태평가, 장부타령으로 분위기를 돋구었다. 김동수 기자



누정전시관



누정오경



솔향촌

봄이 즐거운 이유... 봉화니까!

